

농촌지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현황 및 개선 방안

Analysis of Temporary Housing for the Displaced People in Rural Area Emergencies

Changsu Lim^{a*}, Seung-chul Lee^{a,1}, Eun-Ja Kim^{a,2}, Mi-Jung Park^{a,3}

^a *Environment & Resources Division,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conduct a thorough research and analysis on the designated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ster victims in order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ster victims in country and city, and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designated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ster victims in rural and urban areas.

As a result, the designated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ster victims in urban areas are bigger and have higher capacity, implying the necessity to designate facilities in rural areas that can accommodate larger number of people. As to the analysis of the representative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ster victims in rural areas, different regions had different types of designated facilities and the number of facilities also showed big difference depending on regions. So it is believed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improve the process and system of designating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ster victims

KEYWORDS

Rural Areas
Temporary Housing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전국 실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전국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지역의 지정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이 농촌지역보다 시설면적이 크고 수용능력이 높은 시설 위주임을 추정 할 수 있으므로 농촌지역 역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새로운 시설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농촌지역 대표지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분석결과 지자체마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종류가 상이하게 지정 되었으며, 개소수 역시 지자체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에 지자체에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지정하는 절차와 체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촌지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분석

© 2017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All rights reserved

* Corresponding author. Tel. 82-63-238-2619. Fax. 82-63-238-3825.

Email. visioninjn@korea.kr

1. Tel. 82-63-238-2660. Email. edcvfr7@korea.kr

2. Tel. 82-63-238-2615. Email. kej@korea.kr

3. Tel. 82-63-238-2617. Email. mj.park@korea.kr

ARTICLE HISTORY

Received Nov. 14, 2017

Revised Nov. 15, 2017

Accepted Dec. 26, 2017

1. 서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하여 태풍이나 허리케인, 국지성 호우의 증가로 홍수에 따른 재해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연재해의 발생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다.

산업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위험시설물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재난이 발생하고,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자연재해의 발생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예외는 아니다. 이 같은 재난은 잦은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커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박연직, 2006)

또한 우리나라는 자연재해 피해 중 태풍과 호우로 인한 풍수해가 전체 자연재해 피해의 95%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자연재해 중에서 대규모 피해는 대부분 농촌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해마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와 대응체계는 미진한 실정이다.

재해연보(2013)에 따르면, 10년간 풍수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재민의 수는 229,274명이며 그 중 태풍으로 인한 이재민 발생은 21,288명, 호우 175,037명, 대설 32,712명, 강풍 199명, 풍랑 38명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대응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관련 연구도 임시주거컨테이너 시설 정비 및 관리 방안에 국한되어 실제 지정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체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립재난안전연구원(2014)은 재난대응에 있어 기본은 재난을 회피하는 것, 즉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며, 안전한 대피를 위해서는 대피소와 대피로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인지 할 수 있는 안내시설이 잘 갖추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특별히 이를 위해 위험성 평가 기반의 대피시설 선정과 재난상황에서 적절한 운영을 위해 평상시·재난 시 관리절차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최진호(2004)는 자연재해 후에는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므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는 우선적으로 긴급구호(식량 및 의복 등)품이 필요하며, 그 이후에는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주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2014)은 대피소 통합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이재민 대피소, 풍수해 대피소, 지진대피소, 민방위 대피소 등 재난유형별로 지정·관리되어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 문제를 해결하고, 극한재난 상황에서도 대피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염세례 외(2012)는 기존의 소요량의 확보 위주와 행정적으로 단순 지정되었던 대피소의 적정 위치선정에 관해 보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대피시설을 선정하기 위해 지역, 이용자, 재난 특성 등을 통해 영향 요인을 정의하고, 향후 대피시설 선정 기준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 분석결과, 주로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대피시설과 이재민임시주거시설 지정·관리에 대해서만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안전에 대한 기반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현황분석을 통하여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향후 농촌지역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2.1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2016)의 전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데이터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지역에 대한 실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데이터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전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데이터를 통하여 지역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현황 파악 및 분류를 진행하였다. 그 중 농촌지역 대표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재해연보(2013, 국민안전처)에서 최근 10년간 시군별 우심피해 발생률(2004~2013)을 토대로 발생횟수와 피해금액이 가장 높은 지자체를 각 도별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다.

Table 1. List of local government damaged by each province

Province(Do)	County(Si·Gun)	Damage occurrence	Damages (₩1,000)	Average damages (₩1,000)
Gyeonggi-do	Yangpyeong-gun	7	32,148,525	4,592,646
Gangwon-do	Samcheok-si	8	39,156,688	4,894,586
Chungcheongbuk-do	Goesan-gun	6	55,773,723	9,295,621
Chungcheongnam-do	Seocheon-gun	10	46,837,444	4,683,744
Jeollabuk-do	Wanju-gun	9	58,690,919	5,521,213
Jeollanam-do	Wando-gun	9	111,308,332	12,367,592
Gyeongsangbuk-do	Yeongdeok-gun	6	27,965,824	4,660,971
Gyeongsangnam-do	Hadong-gun	7	68,531,884	9,790,269

선정된 지자체는 경기도 양평군, 강원도 삼척시,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남도 서천군,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남도 완도군,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남도 하동군이며 추출된 8개 지자체의 실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지자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담당 공무원에게 자료를 요청하여 분석하였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현황분석을 위하여 1단계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기준을 검토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취득한 전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데이터를 통하여 지역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현황을 파악하였다. 2단계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종류 현황을 분석하였고, 각 시설면적과 수용능력에 대해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3단계로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각 도별로 우심피해 발생이 높은 지자체를 추출하여 해당 지자체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자료를 취득해 지정 내역 및 GIS 위치 분석 등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1~3단계의 내용을 종합 분석하여 농촌지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지정현황 특성과 문제점에 대해 도출하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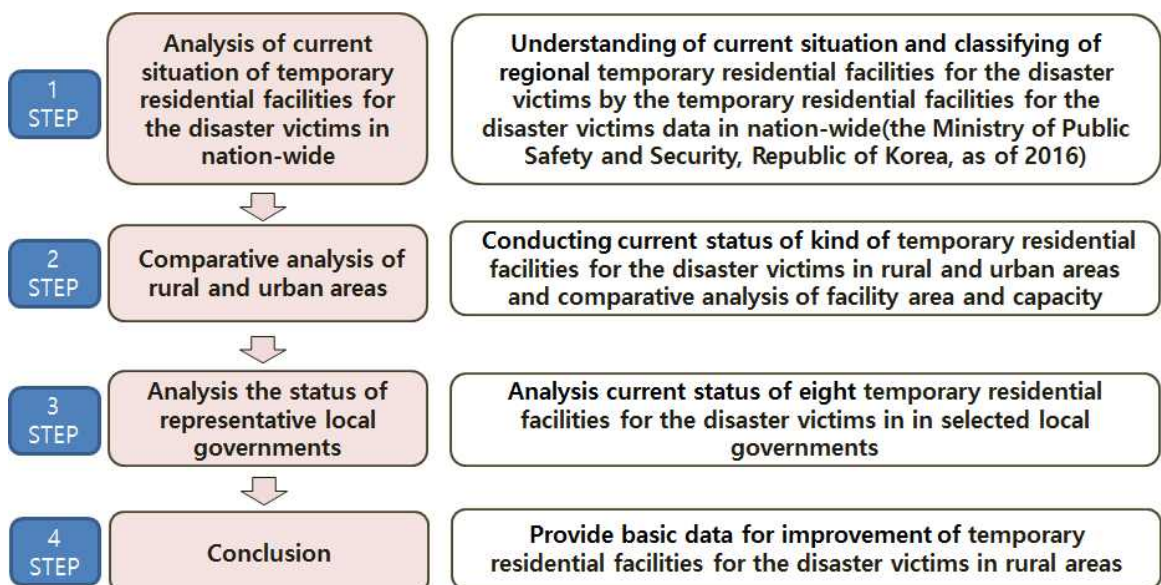


Fig 1. Research procedure diagram

3. 결과 및 고찰

3.1 전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현황 분석

전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현황(국민안전처, 2016) 데이터를 통하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현황을 비교·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구분은 읍·면·동지역에 대해 읍·면 지역을 농촌, 동지역을 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Table 2. The status of the temporary housing for the displaced people of Korea

Classification	Urban area(dong)	Rural area(eup·myeon)	Total
Gangwon-do	307	691	998
Gyeonggi-do	1,250	1,173	2,423
Chung cheongbuk-do	80	592	672
Chungcheongnam-do	279	1,190	1,469
Jeollabuk-do	130	376	506
Jeollanam-do	189	1,309	1,498
Gyeongsangbuk-do	226	1,134	1,360
Gyeongsangnam-do	433	845	1,278
Jeju-do	16	28	44
Seoul Special City	952	-	952
Incheon Metropolitan City	228	121	349
Daegu Metropolitan City	49	36	85
Daejeon Metropolitan City	145	-	145
Gwangju Metropolitan City	137	-	137
Sejong Metropolitan City	25	91	116
Ulsan Metropolitan City	194	78	272
Busan Metropolitan City	279	207	486
Total	4,919 places	7,871 places	12,790 places

비교 분석결과, 전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총 12,790개소이며, 그 중 도시지역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4,919개소, 농촌 지역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7,871개소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지역이 2,952개소 더 많이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는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에 비해 관찰면적이 넓고, 취약지역이 흩어져 있는 농촌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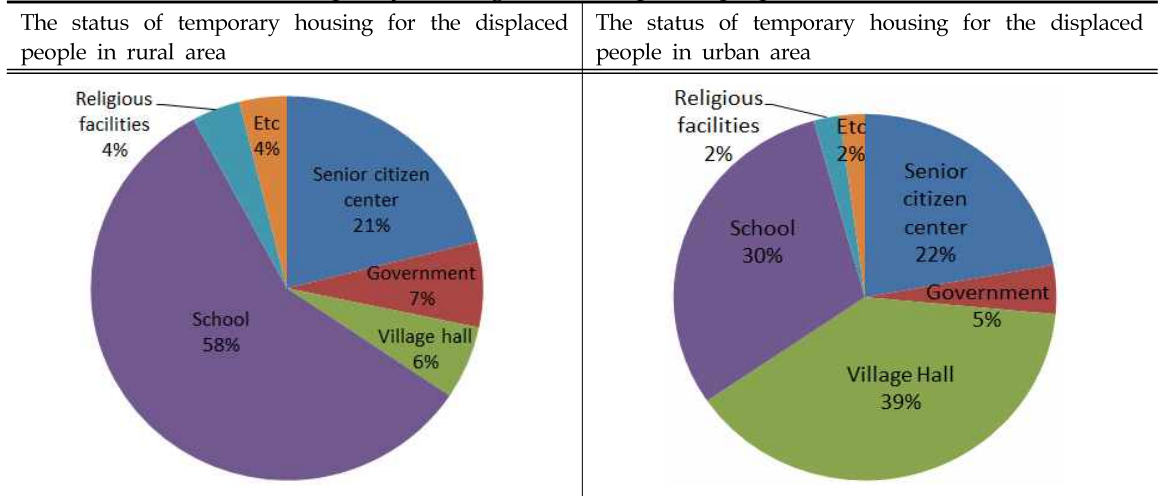
전국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지정된 전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종류는 경로당, 관공서, 마을회관, 학교, 종교시설, 기타시설로 지정이 되어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대한 유형별 지정 개소수는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 The status of temporary housing for the displaced people in urban area and rural area

Urban area(dong)		Rural area(eup·myeon)		Total
Senior citizen center	1,038	Senior citizen center	1,746	2,784
Government	353	Government	338	691
Village hall	303	Village Hall	3,067	3,370
School	2,837	School	2,379	5,216
Religious facilities	195	Religious facilities	174	369
Etc	193	Etc	167	360
Total	4,919 places	Total	7,871 places	12,790 places

도시지역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경로당 1,038개소, 관공서 353개소, 마을회관 303개소, 학교 2,837개소, 종교시설 195개소, 기타 193개소로 총 4,919개소로 나타났으며, 농촌지역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경로당 1,746개소, 관공서 338개소, 마을회관 3,067개소, 학교 2,379개소, 종교시설 174개소, 기타 167개소로 총 7,871개소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도시지역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가장 많이 지정되어 있지만, 농촌지역은 폐교가 많아 해당 시설의 지정이 어렵고, 인근마을 사람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한 마을회관으로 가장 많이 지정 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농촌지역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농촌지역의 이재민 발생 시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유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able 4. The status of temporary housing for the displaced people in urban area and rural area



3.2 도시와 농촌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시설면적 및 수용능력 비교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비교 분석을 위하여 전국 지역을 읍·면(농촌지역), 동(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시설면적과 수용능력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Table 5. An analysis on the regional facility area and capacity

Classification	Rural area(eup·myeon)		Urban area(dong)	
	Facility area(m ²)	Capacity(people)	Facility area(m ²)	Capacity(people)
Gangwon-do	763,044	163,712	807,167	82,691
Gyeonggi-do	784,903	137,986	1,973,295	459,543
Chungcheongbuk-do	396,735	85,914	383,015	106,241
Chungcheongnam-do	881,064	171,926	440,649	96,195
Jeollabuk-do	3,310,779	89,667	744,281	54,146
Jeollanam-do	784,202	179,995	307,553	69,546
Gyeongsangbuk-do	1,050,135	211,532	676,172	167,982
Gyeongsangnam-do	1,095,851	174,147	1,363,694	208,763
Jeju-do	29,379	6,910	21,730	2,890
Seoul Special City	-	-	2,711,290	718,420
Incheon Metropolitan City	86,540	20,793	539,541	14,4415
Daegu Metropolitan City	8,465	2,727	229,065	67,659
Daejeon Metropolitan City	-	-	256,049	71,812
Gwangju Metropolitan City	-	-	483,669	82,030
Sejong Metropolitan City	39,427	8,813	15,186	4,013
Ulsan Metropolitan City	223,935	68,280	880,450	130,852
Busan Metropolitan City	144,057	21,831	692,792	104,576
Total	9,598,516	1,344,233	12,525,598	2,571,774

분석결과, 전국의 지역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개소수는 농촌지역이 7,871개소로 도시지역 4,919개소 보다 2,952개소 많 이 나타났지만,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시설면적은 농촌지역의 경우 9,598,516㎡, 도시지역의 경우 12,525,598㎡로 도시지역의 시설면적이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에서 설정한 수용능력에서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수용면적을 1인당 3.3㎡ 이상으 로 적용하여 산정한 값으로서 농촌지역은 1,344,233명, 도시지역 2,571,774명으로 도시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에 대한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되며, 농촌지역의 경우 시설면적과 수용능력이 적은 시설로 주로 지정되어 있는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볼 수 있다.


3.3 전국 8개 대표 지자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현황 분석

농촌지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상세 조사를 위하여 모든 시·군 지자체를 상세 분석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어려우므로 대표지역을 선발하여 분석하였다.

추출된 지역은 앞서 언급된 Table 1과 같으며(경기도 양평군, 강원도 삼척시,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남도 서천군,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남도 완도군,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남도 하동군), 실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분석을 위하여 해당 지자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담당자에게 자료를 요청하여 현황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 표 6과 같다.

Table 6. The status of temporary housing for the displaced people in target area

Classification	Wando-gun	Goesan-gun	Sochaon-gun	Yangpyeong-gun	Yongdeok-gun	Wanju-gun	Hadong-gun	Samcheok-si
Senior citizen center	108	-	-	-	2	13	-	-
Government	6	-	-	9	4	3	-	10
Village hall	-	-	10	26	9	-	26	-
School	18	24	20	22	12	9	19	-
Religious facilities	2	-	4	12	2	-	-	-
Etc	1	1	-	6	1	-	2	-
Facility area(㎡)	56,782	50,377	81,657	68,016	25,681	22,866	20,378	2,750
Capacity(people)	17,208	13,866	7,074	13,690	6,400	2,490	9,051	750
Total	135	25	34	75	30	25	47	10

 :The highest types of temporary housing for the displaced people in the local govern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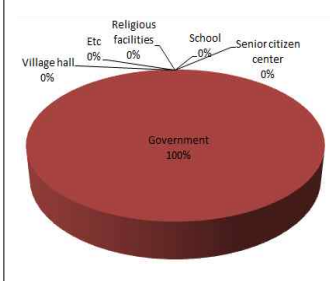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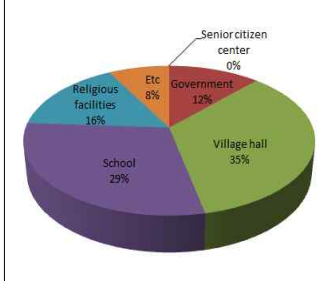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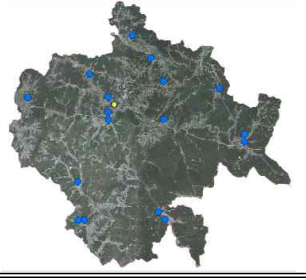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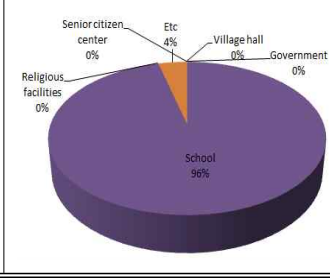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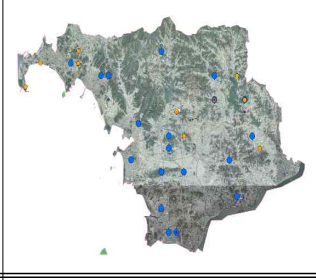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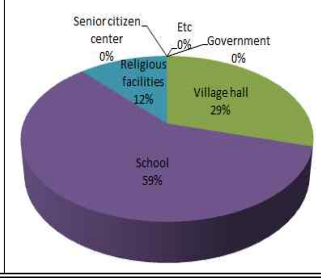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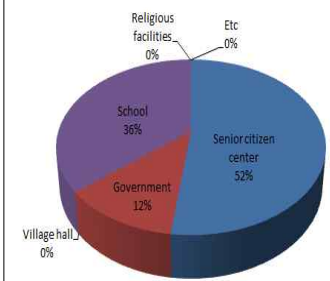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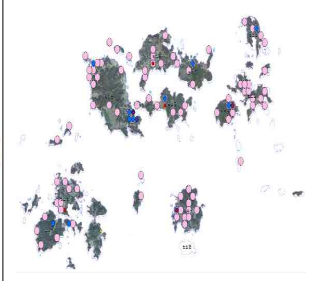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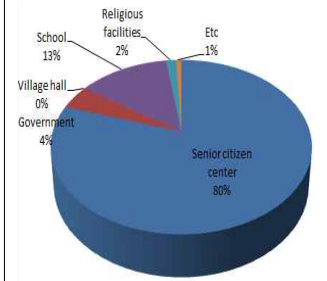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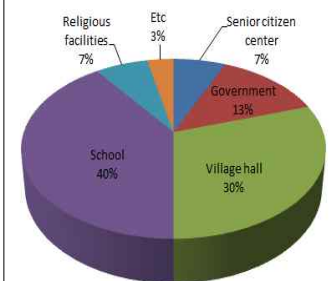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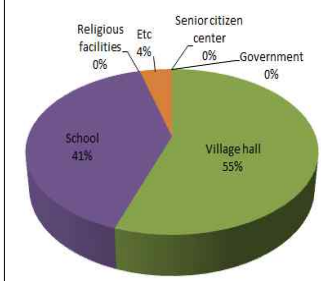
대표지자체 분석결과, 완도군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경로당 108개소, 관공서 6개소, 학교 18개소, 종교시설 2개소, 기타 시설 1개소로 총 135개소로 나타났으며, 괴산군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학교 24개소, 기타시설 1개소로 총 25개소, 서천군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마을회관 10개소, 학교 20개소, 종교시설 4개소로 총 34개소, 양평군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관공서 9개소, 마을회관 26개소, 학교 22개소, 종교시설 12개소, 기타시설 6개소로 75개소, 영덕군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경로당 2개소, 관공서 4개소, 마을회관 9개소, 학교 12개소, 종교시설 2개소, 기타시설 1개소로 총 30개소, 완주군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경로당 13개소, 관공서 3개소, 학교 9개소로 총 25개소, 하동군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마을회관 26개소, 학교 19개소, 기타시설 2개소로 총 47개소, 마지막으로 삼척시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관공서 10개소로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를 통하여 볼 때, 각 지자체별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지정 유형이 각각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완도군의 경우 주로 경로당을 위주로 지정하고 있으며, 괴산군은 학교, 하동군은 마을회관, 삼척시는 공공건물 위주로 지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지자체는 유형에 대한 특성 없이 지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정 시설에 대해 위치, 시설구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일반적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관련 중앙부처에서는 도시지역과 같이 일률적으로 지정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자체별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 지정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설정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대표 지자체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이 재난발생 지역을 고려하여 지정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GIS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표 지자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실제주소 위치를 지도상에 나타내어 분포현황을 파악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 7과 같다. 분포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든 지자체에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시 재난발생 지역과는 관련이 없이 시설이 지정되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able 7. The distribution and situation of the temporary housing for the displaced people of Korea

School	Village hall	Senior citizen center	Government	Religious facilities	Etc
					
The status of temporary housing for the displaced people in Samcheok-si, Gangwon-do			The status of temporary housing for the displaced people in Yangpyeong-gun, Gyeonggi-do		
					
The status of temporary housing for the displaced people in Goesan-gun, Chungcheongbuk-do			The status of temporary housing for the displaced people in Seocheon-gun, Chungcheongnam-do		
					
The status of temporary housing for the displaced people in Wanju-gun, Jeollabuk-do			The status of temporary housing for the displaced people in Wando-gun, Jeollanam-do		
					
The status of temporary housing for the displaced people in Yeongdeok-gun, Gyeongsangbuk-do			The status of temporary housing for the displaced people in Hadong-gun, Gyeongsangnam-do		
					

대표 지자체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종류를 살펴보면, 위 표 7과 같이 강원도 삼척시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관공서 100%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양평군은 마을회관 35%, 학교 29%, 종교시설 16%, 관공서 12%, 기타시설 8%로, 충청북도 괴산군은 학교96%, 기타시설 4%로, 충청남도 서천군은 학교 59%, 마을회관 29%, 종교시설 12%로, 전라북도 완주군은 경로당

52%, 학교 36%, 관공서 12%로, 전라남도 완도군은 경로당 80%, 학교 13%, 관공서 4%, 종교시설 2%, 기타시설 1%로, 경상북도 영덕군은 학교 40%, 마을회관 30%, 관공서 13%, 종교시설·경로당 7%, 기타시설 3%로, 경상남도 하동군은 마을회관 55%, 학교 41%, 기타시설 4%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 시설에 대한 직접 방문 실태조사를 통하여 운영 현황을 파악한다면, 현재 농촌지역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결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재민의 발생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각 지역별로 지정된 이재민임시주거시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분야에 대해 관련 기반시설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대해 재난안전 분야 중 이재민임시주거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취약한 부분을 분석하여 향후 안전복지 분야에서 도·농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행정안전부와 관련 지자체의 자료를 분석하여 농촌지역 이재민임시주거시설의 특성을 정리하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국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농촌지역이 도시지역 보다 개소수는 더 많이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지역에 비해 관할면적이 넓고, 취약지역이 흩어져 있는 농촌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시설면적은 농촌지역의 경우보다 도시지역의 시설면적이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에서 설정한 수용능력에서도 도시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에 대한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되며, 농촌지역의 경우 시설면적과 수용능력이 적은 시설로 주로 지정되어 있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유형을 분석한 결과, 도시지역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가장 많이 지정되어 있지만, 농촌지역은 마을회관이 가장 많이 지정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농촌지역은 폐교가 많아 해당 시설의 지정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마을회관의 경우 인근마을 사람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한 단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농촌지역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농촌지역의 이재민 발생 시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유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농촌지역 대표지자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분석결과, 각 지자체별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지정 유형이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정 시설에 대해 위치, 시설구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일반적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관련 중앙부처에서는 도시지역과 같이 일률적으로 지정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자체별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 지정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설정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또한 대표 지자체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이 재난발생 지역을 고려하여 지정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GIS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제주소 위치를 지도상에 나타내어 분포현황을 파악한 결과, 모든 지자체에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시 재난발생 지역과는 관련이 없이 시설이 지정되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농촌지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 대해 직접 방문 실태조사를 통하여 현재 농촌지역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면, 관련 부처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정책에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과제번호:PJ010891)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결과이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 Choi, Jin Ho, (2004),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emporary housing for the displaced people in emergenc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 Hong, Eunki, Kim, Minseok, Yeom, Taejun, Park, Mijin, (2016), A Study of the Reasonable Space for Each Person about Inner Evacuated Facility,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ol.13, No.1, pp.15-25.
- Kim, Min-Gyeong, Moon, Hyuk, Kim, Hye-Jung, Kim, Kyung-Sook, (2011), A Study on the Residential Planning Factors for Emergency Shelter after Disaster,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27, No.6, pp.93-102.
- Kim, Seong Su, (2009), Study for infra construction of temporary residential districts from disasters,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 Lee, Han Na, (2005), A study on the methods of temporary housing for the displaced people in emergencies, KookM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 Lee, Ho Soong, (2013), A case study on partition structure as privacy provision tool for refugees in disaster shelters, Korea Digital Design Council Vol.13, No.3, pp.133-143.
- Lee Jong Rok, (2016), Study About Facility Appropriacy Based on The Number of People Demanding Evacuation of Evacuation School, Incheo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 Lim, Chang-Su, Oh, Yun-Kyung, Lee, Seung Chul, Kim, Eun-Ja, Choi, Jin-Ah, (2016), A Study on Analysis of Damaged Facilities in Rural Area by Storm and Flood Hazard, Journal of Korea Society of Rural Planning, Vol.22, No.2, pp.19-29.
- Ma, Jae Hui, (2011), Plan for Semi-permanent Housing in Disaster Area,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 Moon, Jung-In, and Lee, Sang-Ho, (2006), A Case Study on the Typology of Temporary Housing According to Disasters,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22 No.9, pp. 141-148.
-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2014), A Research of evacuation assistance technology development for vulnerable people
-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2014), A Study on the Residential Planning Factors for Emergency Shelter after Disaster
-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2014), Technology Development of Integrated Shelter Management and Evacuee Support in Shelter
- Park, dong min, (2007), A Study on the Space of Temporary Housing For the Displaced People in Emergencies, University of Seoul Graduate School
- Park, Ha Nui, (2007), A study on Damage Investigation and Shelter Operation Plan of Storm and Flood Disas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 Park, Nam Hee, Yeo, Wook Hyun, and Kim, Tae Whan, (2012), A Study on Civil Defense Evacuation Facilitie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ol.8 No.1, pp.56-70.
- Park, Nam kwun, and Kang, Shin wook, (2014), A Study on Status Survey for the Improvement of Shelter Facilities for Resident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ol.10, No.1, pp.91-97.
- Park, Yeon Jik, (2005), A Study on the Measures of the Residence Stabilization for the Dwellers in the Disaster Area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 Yeom, Tae-Jun, Han, Jong-Hun, Park, Mi-Jin, and Hwang, Young-Sam, (2015), Study on Design Guideline and Application of Evacuation School Facility,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31, No.10, pp.63-72.
- Yeom, Tae-jun, Lee, Jong-lok, Han, Jong-hoon, Park, Mi-jin, and Hwang, Young-sam, (2014), A Study on the Conformity Assessment Indicators developed for the selection of Evacuation School Facilities,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34, No.2, pp.149-150
- Yum, Se Rye, Son, Young tae, and Lee, Sang hwa, (2012),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selection of shelter, Korea Society of Civil Engineers, Vol.2012, No.10, pp.2174-2174.